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103~142
http://dx.doi.org/10.21211/JHUM.83.4

삼신 관련 소재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 모색

염원희*

〈차 례〉

1. 머리말
2. 삼신의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3. 삼신의 전승 양상을 통해 본 문화 원형적 가치
4. 삼신 관련 소재의 새로운 문화콘텐츠화 가능성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전통문화적 요소 중 삼신에 주목하여, 흥미로운 문화콘텐츠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삼신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문화에서 삼신이 전승되었던 전통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삼신의 현대적 재현은 동화와 웹툰,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 대체로 산육신의 성격을 중심에 두고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거나 조연의 역할에 그쳤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삼신은 원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하며, 궁극의 신으로서 한국인의 일상과 관념 안에 자리잡고 있는 크기에 비하여 문화콘텐츠로서는 산육신이라는 한정적인 이미지만이 재생산되고 있었다. 삼신은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도 유사한 신 관념이 있어, 한국을 넘어 아시아적 보편성을 이미 획득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처녀신이나 강인한 여성신으로서의 모습, 민간신앙에서 특정한 신체(神體)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또한 무속신화에서 삼신은 성장담과 대결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고전문학이나 전통문화를 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여타의 원형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주인공과 서사를 만들어내는 '재창조'를 이뤄내는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제기의 하나로 삼신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삼신, 삼신할머니, 어머니 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재창조, 문화원형

1. 머리말

한국 전통문화의 다양한 장르가 문화콘텐츠로 재창조되고 있다. 이 분야 산업이 시작된 이래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고, 많은 요소들이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획득하면서 재창조되어 왔다.[1] 하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한 번 대상이 되었던

1) 이러한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2003-2004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도한 우리문화원형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전통문화와 민속자료 소재 콘텐츠 개발 분야를 두어 제안서를 공모하였다. 2002년에 선정된 40개의

작품이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원형적 의미를 잃고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고전서사나 전통문화가 문화산업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는 익숙함과 보편성은 물론이고, 과거의 것에 대한 향수와 함께 본래적 근원으로의 회귀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가 그 원형적 의미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동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삼신에 주목하였다. 삼신은 한국인의 보편적 신앙의 대상이면서 원형을 재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신앙 양상과 서사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삼신은 한국인에게 생명을 점지해 준다는 신격으로 인식되며 산신(産神), 삼신할머니, 삼신(三神) 등으로 불린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신격인 삼신은 한국인의 오랜 기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대에도 삼신을 대상으로 삼신상을 차리는 풍속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에서 생명 탄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회자되기도 한다. 삼신은 지금도 한국인의 삶에 살아 숨 쉬는 민간신앙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본고는 삼신의 문화원형적 가치를 탐색하고 관련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과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군사물(5개), 설화·신화(3개), 행사·해양사·현존건축물·건축복원·음원·음향·문양·캐릭터·복식·신앙(각3개), 역사기록물·전통과학·옛지형·소설·옛글씨·민화·풍속화·세시풍속·놀이(각 1개)이다. 2003년에는 '죽음의 전통의례' 등의 주제를 통해 정신적 측면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인물·경제·문화유산·기타 문학·불화·관혼상제·음식·천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의 주제를 보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경하,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현황과 과제」, 『인문콘텐츠』 3집, 인문콘텐츠학회, 2004, pp. 9-15.

현재 삼신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삼신 콘텐츠의 활용 장르, 장르별 활용상의 차이와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삼신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그 원형적 관념과 전승 양상을 고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에 3장에서는 삼신과 관련된 전통적인 관념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본다. 본고에서 문화콘텐츠를 논하면서 삼신을 주목한 이유는 한국인의 오랜 신앙의 대상으로서 대중적으로 보편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신격의 원형적 의미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삼신이라는 신격은 복합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상이다. 삼신은 산육신(産育神)으로서 모성애를 대변하는 자애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삼신할머니'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삼신할머니의 '할머니'는 '크다(大)'는 의미의 순우리말 '한'과 '어머니'의 합성어로, '할머니'는 '여신(女神)'을 지칭하는 말이다. 게다가 무속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이 처녀신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고정된 이미지는 재고를 요한다. 한편 민간신앙에서 민중이 삼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려운 존재'라는 인식이 도사리고 있으며, 손님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존엄한 신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삼신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입체적인 존재이며, 풍부한 관련 서사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신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삼신이라는 전통문화의 캐릭터가 문화콘텐츠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가능성을 지녔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여러 요소가 고착화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재창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삼신의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문화콘텐츠의 초기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유형을 텍스트콘텐츠, 시청각콘텐츠, 순수예술콘텐츠, 산업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분류하고, 각 장르는 일정 부분 영역을 공유한다고 설명한다.[2] 이를 기반으로 최근 생산된 콘텐츠를 논의한다면, 각 장르별로 특징을 가지면서 '디지털콘텐츠'로서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기초로 삼신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텍스트 콘텐츠: 동화에서 재현된 삼신

삼신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양적 특징은 어린이 동화로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삼신은 생명 탄생에 깊이 관여하는 신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탄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 동화 분야의 삼신 콘텐츠 활용에서 특징적인 점은 단순히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삼신의 관념을 차용하는 정도를 넘어, 삼신의 기원을 설명하는 서사인 무속신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삼신은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고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돕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나아가 삼신이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도 등장한다. 삼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103-104. 예를 들면, e-book은 텍스트콘텐츠이면서 디지털 콘텐츠이며, 인터넷 방송은 시청각콘텐츠이면서 디지털콘텐츠이다.

〈표 1〉 삼신을 소재로 하는 동화

번호	책명	지은이	출간년도	출판사
1	『삼신과 아이들』 (이 세상 첫 이야기 시리즈)	정하섭	2002	창작과 비평사
2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	김원석 엮음 ·홍선주 그림	2004	대교출판
3	『삼신할머니는 아기배달부』	김병수	2005	행복한 만화가게
4	『삼신할머니 저승할머니』 (우리 겨레 여신 이야기 시리즈 2권)	초록인 글· 오진욱 그림	2006	교학사
5	『아기를 주시는 삼신: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림책』	편해문 글, 노은정 그림	2008	소나무
6	『숯 달고 고추 달고』	이춘희	2008	사파리

삼신은 2000년대에 들어와 꾸준히 동화의 소재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하섭의 『삼신과 아이들』(2002)은 삼신과 관련된 제주도 무속신화 여러 편을 모아 출간한 동화집이다. 삼신의 유래를 담은 〈삼승할망본풀이〉를 통해 삼신의 탄생을 그린다. 또한 삼신이 생명의 꽃을 키운다는 서천꽃밭을 지키는 꽃감관을 보내주기를 하늘에 청하고, 이에 서천꽃밭 꽃감관의 유래에 대한 신화인 〈이공본풀이〉가 뒤이어 제시된다. 또한 삼신과 마마신 대별상의 대결을 그린 〈마누라 본풀이〉는 물론 제주도의 특수본풀이인 〈원천강본풀이〉와 본토에서 전승되는 〈손님굿〉을 실었다. 약간의 각색을 거쳤으나 기본적으로 무속신화의 기본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다. 동화 분야에서 다양한 무속신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원석의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2004)는 삼신의 또 다른 유래담으로 간주되는 동해안본 〈당금애기〉를 바탕으로 한 서사를 동화로 각색하였다. 〈당금애기〉 외에도 제주도 신화인 〈세경본풀이〉

의 자청비, 〈삼공본풀이〉의 감은장 아기의 서사를 실었다. 『삼신할머니 저승할머니』(2006)도 제주도 신화 〈삼승할망 본풀이〉와 〈마누라 본풀이〉를 쉽게 풀어 쓴 작품이다. 특히 삼신과 저승할망, 대별상과의 경쟁구도를 중심으로 그렸다.

편해문의 『아기를 주시는 삼신: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림책』(2008)은 〈삼승할망본풀이〉를 바탕으로 어린 소녀가 삼신이 되기까지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생기는 과정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의 일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제주도의 삼신인 명진국 따님애기 뿐만 아니라, 저승할망과 대별상 마마신과의 적대관계도 동화에 차용하였다. 또한 무속신화에 종종 등장하는, 아기가 잉태되는 과정의 묘사가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아기들이 세상에 오기 전에 존재하는 공간인 '서천꽃밭'을 등장시켜, 동서남북 사방에 꽃씨를 뿌렸더니 각각 다른 색 꽃이 피었다고 묘사하여 무속신화의 서천꽃밭 설정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몽고반점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 엉덩이를 때리는 존재를 '삼신아기씨'라고 하였다. 할머니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삼신의 무속신화를 기반으로 처녀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무속신화를 가장 충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동화이다.

이춘희의 『숯 달고 고추 달고』(2008)는 제주도 〈삼승할망본풀이〉 내용을 가져와 신화적 세계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살아가는 '미영이 가족'을 등장시켜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기존 동화와 차이점은 미영이 가족을 통해 현대사회에서도 삼신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삼신상이나 금줄 등 관련 풍속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삼신을 소재로 하는 동화는 일률적으로 무속신화의 서사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아들의 부친 탐색이 중심이 되는 육지의 〈당금애기〉보다는 삼신의 유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제주도의 〈삼승할망본풀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색의 대상이 되었다. 각색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제주도 무속신화가 가진 풍부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만 서적으로 출간된 것 중에서 김병수의 『삼신할머니는 아기배달부』(2005, 행복한 만화가게)는 이러한 특징에서 벗어나 있는 예외적인 사례이다. 이 책은 삼신을 중심인물로 하여 전래동화나 민화에 등장하는 동물, 도깨비, 귀신의 캐릭터를 다양하게 등장시킨 아동 만화이다. 동화와 만화라는 장르의 차이도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동화책들과 달리 삼신의 산육신적 성격만 가져와 캐릭터를 구축하였으며, 무속신화의 서사와 무관하다.

동화에 등장하는 삼신은 주로 산육신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거나, 무속신화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가 구체적으로 차용되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가져와 삼신의 서사를 동화화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삼신이 가진 제의적 특성은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인 특징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의례 중 '불도맞이'나 삼승할망에게 아기의 산육 및 치병을 기원하는 '할망비념'에서 구송되고 있는데, 이러한 무속신앙적인 배경은 동화가 각색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정리하면, 동화에서 그려지는 삼신은 전통적 가치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때로는 답습하는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산육신으로서의 면모를 통해 생명의 탄생이 갖는 숭고한 의미를 공통의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2) 디지털 콘텐츠: 웹툰에서 재생산된 삼신

웹툰(Webtoon)은 한국의 디지털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대표적

인 서사체로, 디지털 환경에서 대중적으로 향유되며 고유한 서사성을 발달시켜 온 문화콘텐츠이다. 이는 특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수용되면서 그 장르성을 정립해 왔다.[3] 웹툰은 단순히 만화를 웹 연재로 바꿔놓은 것이 아니며, 개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수의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재매개하여 그 형식적 특징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디지털 서사체이다.[4] 웹툰에서 삼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있다. 해당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네이버(Naver) 웹툰 〈지구가 멸망한다면〉(2012)은 여러 웹툰 작가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단편을 선보인 사례이다. 3화인 후은 작가의 '미로아(迷路兒)'는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라는 뜻으로,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그 이유는 삼신이 더 이상 세상에 아기를 점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미래가 없어진 인류라는 설정으로 지구의 멸망을 다룬 단편이다. 지금까지 삼신은 세상에 많은 아기를 보내었는데, 과거에는 이를 감사하게 여기던 인간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원하지 않는 아이라서 외면하고, 성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외면하였다. 삼신은 선택받지 못하고 되돌아온 성난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세상은 변했고

---

3) 류철균 외, 「형성기 한국 웹툰의 장르적 특질 연구」, 『우리문학연구』 44호, 우리문학회, 2014, p. 568. 이 논문은 만화 장르는 미국과 일본을 주류로 하여 통시적인 발달을 이루어왔고,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또한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대 문화 전반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웹툰은 독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이에 대한 장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 류철균 외, 위의 논문, p. 595.

그 아이들을 다시 보내줄 곳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이를 점지하는 일을 했던 삼신은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비는 것이 마지막 일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 세계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삼신이 존재하는 공간조차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 웹툰에 그림으로 형상화된 삼신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으로 등장하여 흥미롭다.

다음(Daum) 웹툰 〈쌍갑포차〉(2018) 16화 '박속낙지탕'에서 삼신은 남녀 주인공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후에 이 부부의 아이를 점지하여 태어나게 해주는 존재로 등장한다.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은 한국의 전통적인 삼신의 역할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 때 삼신이 남녀를 맺어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붉은 실과 흰 실을 엮는 장면이다. 이는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붉은 실이 담긴 주머니를 가졌다는 중국의 월하노인(月下老人)의 역할과 삼신의 역할을 다소 혼동한 것이다. 전통문화적 요소가 기초적인 검증 없이 인용됐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신도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적 요소와 혼용되지 않아도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존재임에도 왜곡되어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네이버 웹툰 〈금수저〉(2016-현재)에서 작품명 '금수저'는 현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회적 용어를 가져온 것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웹툰이다. 일명 '흙수저'인 주인공 앞에 홀연히 '할머니'가 나타난다. 주인공에게 금수저를 판 할머니의 정체는 비밀에 싸여있다. 운명을 바꾸는 금수저를 판다는 설정과 주인공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지는 점 등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보이며, 주인공에게 결혼하면 좋은 아기를 점지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삼신으로 볼 수 있다. 할머니는 이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여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설정을 마련해 주었다가, 42화에서 다시 등장

하여 극이 지속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가장 대중지향적이고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장르인 웹툰에서는 아직 삼신을 전면에 내세운 스토리텔링 창작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 보편의 신으로서 조연으로나마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때로는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사례도 확인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삼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유효하다. 또한 〈지구가 멸망한다면〉-'미로아'와 〈금수저〉 같은 작품에서 삼신은 본래의 이미지를 고수하면서도 각각 새로운 상상력이 가미된 존재였다. '미로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 삼신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계가 도래하였고, 서천꽃밭으로 생각되는 삼신의 공간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렸다. 영원할 것 같은 신의 세계가 파멸하고, 신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이라 하겠다. 〈금수저〉에 등장하는 삼신 역시 전통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듯하지만,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인간이 삼신의 금수저를 통해 부모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설정이어서, 삼신의 능력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가미되어 있다. 웹툰에서의 삼신은 표면적으로 보면 1차원적인 재현의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웹툰이라는 장르가 가진 비현실적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기존 이미지를 기저로 하되 현대적 의미가 투영된 존재로 볼 수 있다.

3) 시청각 콘텐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생산된 삼신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는 환상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 존재가 등장하는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 2000년대 이후 몇 편의 드라마를 통해 환상물이 등장하였고, 시공간적

배경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환상물을 만들어왔다.[5]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삼신은 등장하였으나, 웹툰에서와 동일하게 주연으로 전면에 내세워지기보다는 조연으로 등장한다.

텔레비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SBS)는 전래의 〈여우구슬〉 설화와 『삼국유사』 소재 〈도화녀와 비형랑〉을 모티프로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스토리텔링한 드라마이다.[6] 이 드라마의 조연으로 등장하는 삼신은 구미호를 탄생시키고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다. 최종적으로는 드라마의 결말에서 구미호가 인간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드라마 전개상 극의 시작과 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삼신은 길달의 도깨비불을 이용해 구미호를 만들었으며, 구미호가 신랑을 얻지 못하자 꼬리를 모두 자르고 삼신각 그림 속에 가둬놓았다. 500년 후 인간 남성에 의해 깨어난 구미호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자, 그녀를 인간 세상에 남도록 허용하는 것도 삼신이다. 이 드라마에서 삼신은 구미호의 시작을 가능케 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허용하는 초월적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이미지의 반복적 '재생산'이기에 삼신이 현대 드라마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존재의 탄생에 관여하는 신은 삼신이라는 관념은 한국인에게 보편적이기에, 드라마에서도 추가적인 캐릭터 설명 없이 삼신이 그 역할로 등장할 수 있었다.

---

5) 박노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환상성: 1990년대 이후의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장르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5. 환상물』, 이론과 실천, 2016, 642-644쪽.

6) 이명현,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미호 이야기의 재창조-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3권 1호, 2012. 〈여우구슬〉은 '인간의 정기를 빼앗으려는 구미호와 구미호를 퇴치하려는 소년의 대립'이라는 단순한 갈등구조이나, 여기에 『삼국유사』의 〈도화녀와 비형랑〉을 가져와 '인간의 구미호 퇴치'라는 정형화된 이야기를 전복시키고, 순수한 구미호와 두 명의 남성을 설정하여 스토리텔링한 작품이다.

최근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삼신이 창조적 캐릭터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는데, 바로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TVN, 2016-2017)이다. 이 드라마에서 삼신은 앞서 살펴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서와 같이 생명을 준 노파신으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여신이자 처녀신의 이미지가 공존한다. 여기에 현대적 여성상을 덧입혀 진취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여신을 만들어내었다. 외형은 현대적 여성이지만 내면은 신 고유의 역할을 강조하여, 삼신이라는 신격이 가진 능력을 아이를 점지하는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중매체에 의해 재현된 삼신 중에서도 '신'으로서의 면모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낸 사례이기에 오히려 신선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삼신은 이 드라마 1화의 첫 장면에서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장사를 하는 노파로 등장한다. 노파가 손님들에게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운명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또 다른 장면에서 삼신은 젊은 여성으로 등장한다. 단순히 젊은 여성인 것이 아니라 세련된 화장, 붉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강렬하고 섹시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킨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주인공인 도깨비 신부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드라마의 중심 서사와 무관하게 등장하여, 인간을 돌보아 주고 악한 이를 징벌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신격이다. 또한 도깨비 신부로 인해 이승에서의 삶에 미련을 갖는 도깨비에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지 종용하기도 하고,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비교적 하위 신격인 도깨비와 저승사자의 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과 소통하며 때로는 동등한 모습으로 등장함으로써 상위의 신격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7] 이러한 형상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창작자가 삼신이라는 신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삼신의 의미를 해치지 않고,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되 있는 그대로의 재생산이 아닌 현대사회에 맞는 캐릭터로 재창조하였다.

이상으로 삼신이 텍스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시청각콘텐츠 등 장르별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양적으로는 동화에서 두드러지게 활용된 양상을 보이며, 그 외에는 웹툰이나 드라마 장르에서 단편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삼신은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만, 무엇보다 제한적 이미지만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비교적 최근 드라마인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서는 고정된 시각적 이미지를 전복시키면서도 본래 여신의 의미를 드라마 서사에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원형을 지키면서도 콘텐츠에 요구되는 창조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드러난 삼신 관련 문화콘텐츠화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삼신이라는 대상이 가진 전통문화로서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각 분야에서 재생산되었던 삼신이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널리 알려진 관념 외에 새로운 이미지의 제고가 가능한 추가적인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삼신의 다양한 이미지와 신격으로서의 복합적인 면모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써 필요하다. 셋째, 이 소재가 문화콘텐츠화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문화콘텐츠 소재로서의 삼신의 가

---

7)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 등장하는 삼신에 대해서는 염원희,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에 재현된 전통문화의 변용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48, 인문콘텐츠학회, 2018, pp. 122-123에 'Ⅱ. 2. 대모신의 이미지를 회복한 삼신' 부분에 상술되었다.

능성을 새롭게 타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3장과 4장에 걸쳐 논의하고자 한다.

3. 삼신의 전승 양상을 통해 본 문화원형적 가치

1) 민간신앙에 나타난 삼신

이능화는 삼신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태(胎)를 지켜주는 신을 삼신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 태를 '삼'이라 하므로, 이른바 삼신이라는 것은 태신(胎神)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속에서는 삼신의 '삼'을 숫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잘못이다."고 하였다.[8] 이능화의 말처럼 삼신을 세 명의 신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본고에서 다루는 삼신과 구분되어야 한다. 삼신은 포태신(胞胎神)이자 산육신(産育神) 능력을 갖고 있어,[9] 그 신능을 보았을 때 생명의 신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민간신앙에서 삼신은 새로운 생명을 점지하고 무사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진 신격이다. 그런 까닭에 출산한 산모의 머리맡에는 삼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삼신상을

8) 이능화, 「제16장 무당이 행하는 신사(神事)의 명칭-6.삼신신사」,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p. 290. 삼신의 삼을 숫자로 오인하는 데 대하여 이 책의 p. 264 「제15장 무축의 용어와 의식」 '5. 삼신(三神)'에서는 "무가 중에 삼신제석(三神帝釋)'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삼성(三聖)을 가리키는 것이다. 삼성이란 단군의 삼대인 환인(桓因)·환웅(桓雄)·왕검(王儉)을 말하며,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 있는 삼성사(三聖祠)가 이것이다."고 하여 삼신이라는 표현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朝鮮常識問答 朝鮮常識』(육당최남선전집 3), 현암사, 1973, pp. 241-242. 최남선은 이외에도 대를 잇는다는 수사신(授嗣神)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차린다. 삼신상은 밥, 미역국, 정화수를 각각 3개씩 준비하여 삼신을 위해 차리는 상이다. 과일이나 떡, 나물 등을 곁들이기도 하지만, 생선이나 고기, 술은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신들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신(家神)들이 생선, 고기, 술 등 유교적인 제사의식을 따르는 것과 달리 삼신상은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인 전통의 의례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10] 이러한 삼신상의 풍속은 최근까지도 현대적인 민속으로 행해지고 있어 흥미롭다. 출산의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바뀌었기에 과거와 같이 출산 당일에 삼신상을 차리기는 어렵지만, 아기의 백일이나 돌에 삼신상을 차리는 풍속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 태어난 아기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현대에서도 동일하기

10) A. Guillemoz, 「삼신-東海岸의 한 漁村에서의 信仰과 巫歌를 中心으로-」, 『한국문화인류학』 7-1, 한국문화인류학회, 1975, p. 34. 삼신상은 조상이나 다른 신에게 올리는 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유교의 제사상과 구분된다. 또한 불교에서 부처에게 올리는 상에도 냉수가 올라가지만 불교에서는 본래 차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고, 냉수를 올리는 것은 불교 본래의 요소가 아니라 한국화된 불교의 모습이다.

11) 최근에도 아기의 백일날 가정에서 아기를 위해 삼신상을 차리는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어 흥미롭다. 삼신상을 차릴 때의 주의사항과 절차가 존재하며, 축문을 읽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민속이 변형된 형태로 전승되면서 새로운 일생의례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눈여겨 볼만하다. 백일이 되는 날 새벽, 삼신상에는 미역국, 흰쌀밥, 정화수를 각각 세 개씩 준비하고 삼색 나물을 같이 올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하며, 관련된 금기가 존재한다. 삼신상의 위치를 동쪽으로 하고, 삼신에게 바치는 축문을 읽기도 한다. 백일에 삼신상을 차리는 풍속은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보자 곽미경(여, 39세)에 의하면 준비한 삼신상은 친정어머니의 조언으로 동쪽방향으로 놓았다. 100일이 되면 삼신이 아기를 돌봐주다 가시는 날이라서, 삼신이 떠난 후에도 앞으로도 잘 자라게 해 달라는 소망을 기원하였다고 한다(2018년 4월 19일 인터뷰). 시중에 출간된 육아에세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풍속이 행해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난다(만화가), 『거의 정반대의 행복』, 위즈덤하우스, 2018. “백일 아침, 새벽 수유를 끝내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로 삼색 나물을 만들어 ‘삼신상’이라는 걸 차렸다. 동쪽을 향해 놓은 삼신상 앞에 잠이 든 시호를 조시히 눕힌 뒤 ‘우

에, 삼신에 관한 민간신앙은 한국인에게 절대 잊힐 수 없는 관념이라 하겠다.

또한 삼신은 성주나 조왕 등 집안의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가신신앙의 여러 신격 중 하나로 집안에서 개별적인 신체(神體)의 형태로 모셔지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바가지에 햅쌀을 담고 그 위에 건미역을 얹고는 풍 안 먹인 무명베로 싸서 안방 정결한 곳에 봉안(奉安)해 둔다.[12]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신체의 형태는 대부분 단지나 바가지의 형태이거나 그 안에 쌀을 담아 두는 방식이다. 부르는 이름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부지역은 제석주머니, 영남지역은 삼신바가지 또는 삼신단지, 호남지방에서는 지앙단지, 지앙동우들로 부른다.

또한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의 측면에서도 삼신은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산속(産俗)에서는 한 지붕 아래에서 며느리와 딸이 함께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속신이 있다. 이는 며느리와 딸이 각기 다른 집안의 씨를 받았기 때문인데, 씨가 다른 아기는 각기 다른 삼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삼신은 가신이면서 일종의 조상신으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한 분의 삼신을 모시게 되는데, 보통은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같은 성씨는 동일한 삼신이 돌본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출산해도 상관없지만, 며느리와 딸은 함께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친정에서 딸이 아이를 낳아도 친정어머니는 삼신상을 따로 차리지 않는다. 친정에서 삼신상을 차릴 경우 '삼신다툼'이라고 하여 친정의 삼신과

리 시호 발 크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절을 했다. 21세기 인간 둘이서 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 나는 이런 쓸데없는 토속신앙을 꽤 재미있어 한다."

12) 이규창, 「삼신굿고」, 『전라민속논고(全羅民俗論攷)』, 집문당, 1994, p. 288.

시댁의 삼신이 서로 다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13] 덧붙여 한 가정에서 임신이나 육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집의 삼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떠나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삼신받기'를 행하기도 한다. 삼신받기란 삼신을 '집'이나 또는 '임신을 원하는 불임녀'에게로 받아 모시는 의례를 말한다.[14]

이와 같이 한국 전통문화에서 삼신은 산육신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가진 신격이면서 아이의 임신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고,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신으로 신격의 기능이 폭넓다. 가정에서 삼신을 형상화한 신체가 존재하며 그 형태가 다양하다. 삼신받기나 삼신상을 바치는 신앙행위가 존재하며, 자애로운 여신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으나 민간신앙에서는 그 성격이 단일하지 않았다.

2) 무속신앙과 무속신화에서의 삼신

삼신은 가정신앙의 신격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은 무속의례로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무속의례를 육지에서는 삼신굿 또는 삼신풀이라 하는데 그 목적은 집안에 새로 삼신을 모시기 위해, 아기 점지를 위해, 아기의 치병을 위해, 산모의 건강과 젖이 잘 나

---

13) 백민영, 「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8963&cid=50222&categoryId=50229(검색일: 2018.4,28)

14) 정래진, 「삼신받기의 제 유형과 의미」, 『역사민속학』 제2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146쪽. 삼신받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첫째, 산 또는 물에서 각각 산신과 용왕의 도움으로 삼신을 받거나, 둘째, 어떤 자연물이나 동식물, 그리고 인간이 지닌 생산력을 상징적으로 불임녀와 그녀의 가정으로 전이시켜서 수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다. 생산력의 상징으로 지목된 구체적 사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힘은 그것이 자연물이든, 동식물이든 인간이든 모두 삼신이라고 불린다. 달 삼신·은행나무 삼신·개 삼신·소 삼신 등이 그러한 예이다. pp. 150-151.

오도록 하기 위해서로 요약된다. 특히 난산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잦은 병치레를 할 때는 삼신의 노여움을 푼다 하여 삼신굿이 성행하였다.[15]

또한 삼신은 관련 신화가 존재하는 등 궁극의 창조여신으로서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삼신의 유래를 풀이하는 무속신화는 〈당금애기〉와 〈삼승할망본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두 신화에서 삼신은 모두 처녀신으로 등장한다.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 탄생에 관여하는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은 태초의 여신으로서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무가 본풀이 사전』에 수록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제주도의 〈삼승할망본풀이〉의 구송본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맹진국할망본: 석가대왕(釋迦大王)과 북해성상(北海聖上) 석가산(釋迦山)의 딸인 명진국 아기는 7세에 앉아서 천리를, 서서 만리를 보고, 하늘 아래 굽어보며 단수육갑·오행육갑을 짚으니(점을 치니), 15세가 되었을 때 옥황상제가 하늘로 부른다. 명진국 아기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은비녀 은가락지, 놋비녀 놋가락지를 둘러끼운다. 물명주, 핫바지, 단속곳, 다홍다단, 홑안치마에 구슬무늬의 겹저고리를 둘러입고 코제비 버선에 태사신을 신었다. 명진국 아기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은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노각성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옥황상제는 명진국 아기에게 "인간 백성 생불(生佛, 자식)이나 주라."고 하자, 명진국 아기는 자식을 주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한다. 3월 3일 옥황상제는 中선반에 은대야에 꽃씨, 은씨를 내어준다. 또 인간 세상에 자식을 내리려 할 때는 앞에는 애기 삼신을 내어주고, 뒤에는 걸레 삼신을 내어주고, 업게 삼신(애기를 돌보아주는 이)을 내어주라 한다. 또한 은가위 하나, 참실 세 묶음, 꽃씨와 은씨를 준다. 은가위와 참실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쓴다.

15) 김난주, 「한일 산육신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15, pp. 130-131.

인간세계로 내려온 명진국 아기는 팔자집을 짓고 문안엔 아기보살을, 문밖에는 애보는 보살을, 층계 위에는 걸레 보살을 거느린다. 옥황상제에게 받은 꽃씨는 중선반에 심었는데, 꽃가지는 45,600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었다. 동개남은 동쪽으로 난 가지로 지장대왕님에게 받은 꽃이 무성하였다. 서개남은 서쪽으로 난 가지이다. 북쪽으로는 북단명(北短命)의 가지에 꽃이 무성하였다. 남쪽으로는 남장수(南長壽) 꽃이 무성하였다. 이렇게 생명의 꽃밭을 만들어서, 옥황상제가 생명을 내릴 때 호적(戶籍)을 보고 단명이면 북쪽 꽃을, 장수면 남쪽 꽃을 내리는 것처럼 그에 맞는 꽃을 내린다.

명진국 할망은 인간이 15세가 되어 부부간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 생명을 주고 출산일이 되면 해복을 시켰다. 일곱 달 반짐, 열 달 찬짐을 실어서 배 바깥에 생불을 시켰다. 할망이 배 바깥에 나오게 한 자손을 옥황상제가 탯줄을 대칼(竹刀)로 자르고, 참실로 잘라매었다. 낳은 지 사흘이 되면 쑥을 삶아서 애기엄마의 목욕을 시켰다. 이 때 아기알주머니(태반)는 불태우고, 애기엄마의 젖을 78 젖줄로 세워서 애기 젖을 먹이고 베내옷을 지어서 입혔다. 할망 생일은 3, 13, 23일이다. 7일째 되는 날은 아기구덕(요람)을 만들어서 눕혔고, 3, 13, 23일마다 할망전에 불공을 한다.[16]

② 저승할망본: 동해용왕 동경국에서 태어난 동해용왕 따님애기는 한두 살부터 부모 몸에 불효하였다. 결국 일곱 살에 은상자, 놋상자에 넣어져 78개의 자물쇠를 채워 바다에 버려졌다. 은당병에 젖을 담고, 은같은 마마주술, 금같은 마마주술을 물리고 동해바다에 버려진 채로 물 아래로 3년, 물 위로 3년을 떠다니면서 동해바다 들물결, 서해바다 썰물결에 떠 다녔다. 청용산(靑龍山), 황용산(黃龍山)을 넘어 아미산에서 자식이 없어 수륙을 올리는 인대감을 만난다. 인대감이 중대사(大師)를 불러 무쇠뒤주를 파옥하고 열어보니 월궁선녀(月宮仙女) 같은 동해용왕 따님애기가 나왔다. 동해용왕 따님애기의 사연과 생월이 초구월 초하흐렛 날임을 들은 인대감은 그녀에게 저승할망이 되길 권한다. 동해용왕 따님애기는 삼구월 초아흐렛날 아홉명의 구천왕(저승 삼

16)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pp. 136-139. '서귀읍 법한리 여무 60세 김매옥님' 구송.

신)을 거느리고 붉은 가위, 붉은 참실, 저승 구천목(九泉木) 할머니를 거느리고 저승으로 들어갔다. 명진국 할망은 이승에 있는 저승아기는 저승 할머니에게 보내고, 이승의 자기 아기만 향물에 목욕시키고 차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할망이 잊어버리고 북단명 꽃으로 자식을 주면 옥황상제는 그 아기를 저승으로 보내버렸다.

명진국 할망이 하루 수천만 명 자식을 주면, 옥황상제는 호적문서를 확인하고 북단명 꽃을 준 자식이 있으면 저승으로 보내버린다. 저승할망 생일은 9, 19, 29일이다. 남장수 꽃을 받은 아기라도 저승할망이 오라고 하여 촉귀(觸鬼)되어서 젖이나 기저귀에나 구덕(요람)에라도 붙어서 오면 아기가 아프게 되는데, 저승할망날인 9일, 19일, 29일에 저승할망 길을 잘 닦으면 아팠던 아기도 낳는다. 그렇지 않고 명진국할망 노한 일이 있어서 애기가 아프거나 괴로우면 명진국 할망에게 잘 빌면 살려준다.[17]

③ 할망본[18]: 명진국할망과 어전국(御殿國) 대별상 마누라님과의 대결담이다. 대별상은 천연두를 일으키는 손님 마마신이다. 명진국 할망이 아기를 주려고 내려갔다가, 대별상의 대장행차를 만나 길 아래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다. 명진국 할망은 대별상 대부인에게 석 달 열흘 태기를 준다. 그 후에 석해산에 올라가보니 명진국 할망 자손의 천하일색 얼굴이 박박 얽은 속돌화리(속돌로 만든 화로 모양), 불에 그슬린 나뭇토막 모양이 되어 있어 더러워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명진국 할망은 대별상 대부인이 열 달이 지나 스무 넉 달이 되어도 해복을 시켜주지 않는다. 대별상이 석가여래에게 점을 쳐보니 "할마님이 노하고 애 달아서 해복을 아니시켜준다"고 하였다. 대별상은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고 바랑을 치고 석해산에 올라 문밖에서 밤낮으로 굴복하여 14일이 되었다. 명진국 할망이 열 두 지옥문을 열어주니 대별상은 문문마다 빌어가며 신의 마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아내가 해복을 못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해복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명진국 할망

17) 진성기, 위의 책, pp. 139-141. '서귀읍 법한리 여무 60세 김매옥님' 구송본 요약.

18) 진성기, 위의 책, pp. 141-146. '서귀읍 법환리 여무 66세 김해옥님' 구송본 요약.

은 자신의 자손을 얼굴을 얽어 놓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 서신국(마마신의 나라) 자손들은 해복시켜 줄 수 없다고 하자 대별상은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고 떠난다.

대별상은 대병을 이끌고 가 할망 자손을 불러다가 사흘을 눕혀 잠재워서 얼굴을 본래대로 만들지만, 아기들 눈에 청가루, 백가루를 뿌려 사군문(四軍門, 사방)에 걸음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화가 난 명진국 할망은 대별상 대부인의 아이를 해복시키되 태어난 아기를 알주머니에 쓰워둔 채 석해산으로 와 버린다.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대별상은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빈다. 대별상이 물명주 한 쌈, 강명주 한 쌈으로 아기 눈을 좌우 세 번씩 쓰다듬으니 아기의 눈동자 문이 열려서 사방으로 걸어간다. 할망은 기뻐하여 대부인을 찾아가 은가위로 알주머니를 벗겨버리니 대별상의 자손 얼굴이 훤하다. 할머니는 참실 세 묶음으로 아기 탯줄을 잘라매어 은가위로 탯줄을 잘라, 덕둔산 샘물을 넣고 불을 피워 쑥물을 끓여 아기엄마를 목욕시키고, 아기를 솜으로 감싸서 눕히고 배내옷을 입혔다. 그 다음으로 젖어머니를 정하고, 아기엄마의 젖을 열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였다.

요약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위의 신화를 통해 삼신의 신격이 여신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불도맞이제'에서는 아기를 점지·잉태·탄생시키는 생불할망신과 아이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죽게 만드는 구삼승할망(저승할망),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마마(천연두)를 앓게 함으로서 얼굴에 흉터를 만들어 놓는 마마신 등 아이와 관련된 세 신이 모셔진다. 그러나 신화 내용 중 생불할망이 나머지 두 신의 능력을 제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이 신화가 불리는 제의의 명칭이 '원불수륙침' 또는 '불도맞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의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어디까지나 아이를 점지·잉태시키면서 출산과 양육을 맡고 있는 생불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도신이란 곧 생불신임을 알 수 있고, 이 제의는

생불신에게 제의를 행하면서 아이의 잉태와 안전출산, 그리고 아이가 질병 및 마마에 걸리지 않기를 기원하고, 혹 이런 병에 걸렸다 해도 잘 이겨내어 무사히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위해 행해졌던 제의라 할 수 있다.[19] 삼신은 당당한 여신으로서 한국 무속신화의 주인공이다. 풍부한 서사를 갖고 있으며, 그 서사의 문면에는 삼신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다.

3) 동아시아 보편의 생명의 신

생명 탄생을 주관하는 여신은 한국은 물론 인접한 중국, 일본에서도 존재하는 신격이다. 중국은 송자관음을 비롯해 출산 전설과 관련된 신들이 존재한다. 그 명칭은 매우 다양하여 "송자양양(送子孃孃)" "최생양양(催生孃孃)" "송자관음(送子觀音)" "장선송자(張仙送子)" "기린송자(麒麟送子)" 등이다. "송자양양(送子孃孃)"과 "최생양양(催生孃孃)"은 구체적인 행위와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양양(孃孃)이 합쳐서 생성된 신으로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아이를 보내주는 어머니', '아이의 출생을 재촉해 주는 어머니'라는 의미이다. 관음은 생육신으로 송대에 집집마다 모실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오늘날에 관음은 집안에서 섬기고 있다. 송자관음은 관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장선송자(張仙送子)에서 장선은 아이를 보호하는 신으로, 신상은 활로 아이를 잡아먹는 천구(天狗)를 죽이는 그림이다. 기린송자는 기린이 아이를 보내주는 그림이다.[20] 한국의 삼신이 다양한 신체를

19) 이수자, 「삼신 신앙의 기원과 성격」, 국어국문학회 편, 『민요·무가·탈춤 연구』, 태학사, 1998, pp. 366-367.

20) 정연학, 「한중 가신 신앙의 비교」, 『비교민속학』 35집, 한국비교민속학회, 2008, pp. 150-151.

통해 표현되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신격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남긴 것이 차이점이겠으나, 신앙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를 가정에서 모셨다는 것은 생명의 신에 대한 신앙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유형이 또 다르다. 일본의 산육신은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각 직능에 해당하는 신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또 산육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능과 산육신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산신(山神), 측신(厠神), 빗자루신, 산토신(産土神) 등이 산육신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출산의 현장에서 안산(安産)을 보장해주는 신인 우부가미(うぶ神) 또는 오부노가미(おぶの神)야 말로 산육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부가미의 역할은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쌀밥을 지어 산신께 공양하고 산모와 식솔들이 함께 먹는 우부야아케(産屋明け)라는 의식을 치른 후에야 해소되었다. 이 의식이 끝나야 비로소 산모의 부정이 씻기고 그때까지 절대 넘을 수 없었던 마을 신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부가미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데 이후 아이의 운명은 신사에 정좌한 조상신인 우지가미(氏神)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다.[21] 여기까지 보면 한국과 일본은 산육신의 역할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부가미의 경우 측신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임산부가 변소를 깨끗이 청소하면 순산을 하거나 예쁜 아이를 낳고, 반대로 변소를 더럽게 두면 얼금뱅이 아이, 장애아가 태어난다는 전승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동일본 지역에서는 셋친마이리(雪隱參り)라 하여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후 산파가 갓난아기를 안고

21) 김난주, 「韓日 産育神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9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5, p. 133.

변소에 가서 예를 올리는 통과의례가 전한다.[22] 두 번째로 일본의 산육신들이 죽음의 표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 안산과 양육의 신으로 여기는 우바가미(姥神)의 일종으로 널리 신앙되고 있는 '온바사마'의 경우, 저승의 노녀귀(老女鬼)인 다쓰에바(奪衣婆)의 형상을 하고 있다.[23] 한국의 경우도 삼신이 무속신화의 명진국 할망이 생명의 신이고, 대결구도에 있는 저승할망이 명이 짧은 아이를 돌보는 신격으로 좌정한 것을 보면 생명과 죽음의 역설에 대한 관념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생명의 신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원의 대상이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이 잘 되도록 돕는 신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의 간절함과 태어나고 난 후의 육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를 어떠한 기원의 대상을 통해 해소하려 한 신앙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삼신 관련 소재의 새로운 문화콘텐츠화 가능성

본고는 한국 전통문화의 주인공 중 하나인 삼신을 중심으로 관

---

22) 김난주, 위의 논문, p. 136.

23) 김난주, 위의 논문, p. 145. 또한 우바가미(姥神)는 관련 신앙은 물론 특히 지명 유래담을 다수 전하는데, 이들 전설이 상당수 아동의 죽음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전국에는 우바 늪(姥ヶ淵), 우바 연못(姥ヶ池), 우바 우물(姥ヶ井), 우바 샘(姥清水) 같이 우바(姥)가 붙어 있는 지명이 많다. 그리고 이들 지명의 상당 부분은 우바와 그가 보살피던 아이의 전설을 담고 있다. 이 전설을 기반으로 우바가미(姥神) 신앙이 생겨나게 되었다(pp. 145-146).

런 내용을 살펴보았다. 삼신의 현대적 의미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신을 하나의 캐릭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캐릭터[24]는 "차별화의 힘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평가된다. 훌륭한 캐릭터가 가진 덕목 중 하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각 분야를 상관시키고 상호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25]는 점이 꼽힌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 소스로 활용될 한국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잘 만들어낸 캐릭터 하나는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

24) 캐릭터는 축자적인 의미로는 성격, 개인적 특성이나 소설·영화의 등장인물을 뜻한다. 이 말이 월트 디즈니사에 의해 계약서 등에서 팬시풀 캐릭터(Fanciful Character)라고 상용화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캐릭터 산업에서 말하는 캐릭터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생겨나거나 상품, 기업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겨난 가공의 인물·동물·의인화된 동물 등을 일러스트로 시각화한 것 혹은 특정한 관념이나 심상을 전달할 목적으로, 의인화나 우화적인 방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고유의 성격 또는 개성이 부여된, 가상의 행위 주체"로서,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이미지를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캐릭터산업에서 말하는 캐릭터는 머천다이징(merchansing)을 전제로 무형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수, 「한국 캐릭터서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pp. 192-193. 캐릭터에 대한 이와 같은 박기수의 논의는 미야시타 마코토, 『캐릭터 비즈니스, 감성체험을 팔아라』, 정택상 역, 넥서스북스, 2002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1 캐릭터 산업계 동향조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2를 참고로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25) 박기수, 위의 논문, pp. 194. 이 글에서는 캐릭터의 의미를 "㉠ 자기 정체성의 창출과 강화라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이 과정에서 ㉡ 브랜드의 차별성 및 변별적 가치를 부여하고, ㉢ 이것을 머천다이징 과정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 문화콘텐츠산업의 각 분야를 상관시키고 상호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pp. 193-194).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캐릭터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감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적 캐릭터 창출을 위해 한국의 고전서사나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기왕의 문화콘텐츠가 상업성과 대중성, 상품 개발의 관점에서 고전서사를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고, 작품을 훼손하고 폄하한다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의미와 가치가 문화콘텐츠에서 잘 드러나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26] 본고는 그러한 가능성을 한국인의 영원한 어머니신인 삼신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는 물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삼신이 어떠한 면에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보편적 신으로서의 공감성을 확보한 존재

삼신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신으로 존재하였기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존재로서의 친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나아가 생명의 신에 대한 희구(希求)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삼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생명의 신이 여신에서 할머니의 형상으로 변모하면서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인 신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고 하겠다.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는 도타운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지녔으며,

26) 박수진, 앞의 논문, p. 189.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보다 다감한 모성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주고 성장을 돌보아주는 신이 지금 이곳에 와서 재현되었을 때 대중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위로, 치유, 긍정과 같은 것들이다. 캐릭터의 이미지와 이를 통해 향유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소 뻔한 것이라도, 그 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싫증날 것 같은 정형적 구조를 지닌 영화나 만화 한 편을 여러 번 보아도 흥미가 있는 이유는 '공동체의 합의' 속에 내재된 기대치를 맛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합의된 서사', '기대치'를 보편적 정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서구조는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에 공유되는 사회적 체험이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겠지만 같은 민족공동체의 보편적 정서구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27] 그렇다면 전통문화를 통해 그 민족에 내재한 보편적 정서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에 걸맞는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노력은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시도라 할 것이다. 또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픈 인간의 욕구는 시대가 변해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고전서사와 전통문화는 이 문제에 대해 인간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흔적이 쌓여 있는 장르이며, 지금도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덧붙여 문화원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소재의 글로벌화의 문제이다. 콘텐츠는 국경 없이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 원형콘텐츠를 일본, 미국 등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종교, 문화 등에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동북아로

27) 송성욱,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20, pp. 82-83.

부터 시작하여 몽골 러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글로벌콘텐츠로서의 선점이 필요하다.[28]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보편의 신일뿐만 아니라, 한·중·일에 공통적으로 생명의 신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삼신이 있다면 중국에는 송자양양, 일본에는 우부가미와 같은 신격이 있어, 생명의 신에 대한 관념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영상매체나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삼신이라는 캐릭터를 접했을 때 각국의 향유자들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인접한 아시아 국가에서 유사한 관념이 존재한다면 이를 소재로 콘텐츠화 했을 때 아시아 전역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삼신은 글로벌 콘텐츠로서 손색이 없는 소재로 판단된다.

2) 다채로운 외형과 복합적인 성격을 통한 다양한 변신의 가능성

옛이야기나 소설과 같은 장르에서도 주인공의 외양을 묘사하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상상의 여지를 두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한 스토리텔링에서는 기존의 소설이나 극본에서 요구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아니라 외양묘사를 통해 설정되는 아이템과 나이, 지능, 성별, 성적 경향, 언행의 스타일, 의상, 교육정도, 개성, 가치관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인식한다.[29] 삼신은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다양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캐릭터로 형상화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존재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삼신의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28) 박경하, 앞의 논문, p. 20.
29) 홍순석 외, 『한국문화와 콘텐츠』, 한국문화사, 2016, p. 10.

할 수 있다.

먼저 외적인 요소부터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삼신 뒤에 붙는 '할망', '할머니'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로 인해 외모가 고정되어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외형을 다양하게 창조할 수 있다. 인격신으로서 표현된다면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모습의 신으로 변신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무속신화에서는 삼신의 구체적인 외양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진국 아기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은비녀, 은가락지, 놋비녀 놋가락지를 둘러끼운다. 물명주, 핫바지, 단속곳, 다홍다단, 홑안치마에 구슬무늬의 겹저고리를 둘러입고 코제비 버선에 태사신을 신었다."고 하여 처음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는 때의 모습이 제시된다. 게다가 "옥황상제는 中선반에 은대야에 꽃씨, 은씨를 내어준다."고 하여 삼신과 관련된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은가위와 참실 세 묶음과 같은 것들은 산모의 해산에 사용되는 도구로 등장한다.

인격신에 한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다양한 외형 변신이 가능하다. 민간에서 삼신을 모시는 형태인 쌀을 담은 주머니, 바가지, 단지, 삼베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본래 신의 존재를 한 가지 이미지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삼신도 다양한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는 특성이 부여된다면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

이러한 외형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외적인 변신이 다양하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삼신이 바가지나 단지 등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은 소재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원형을 구체화한 개별 형태일 뿐이며, 이는 여성의 자궁과 동일시된다고 생각된다. 바가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조롱박은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여성 자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그 바가지나 단지에 그 해에 추수한 햅쌀을 담아 보관하며 매해마다 이 행위가 반

복됨으로써 생명 순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신의 외형이 이러한 형태로 대중매체에 드러났을 때, 그 의미는 다양한 변신의 가능성을 넘어 생명의 신으로서 삼신이 갖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삼신은 자애로운 여신으로 인식되지만, 민간신앙에서는 그 성격을 복합적으로 본다는 점도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 삼신에게 일종의 질투와 같은 감정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삼신은 그 집안의 부계혈족에 인연이 있는 조상신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 며느리와 딸이 같은 시기에 한 집에 출산을 하면 안 되고, 금기를 어겼을 경우 '삼신다툼'이라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신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신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집집마다 존재하는 신이므로 신성한 면모를 다소 벗어난 신격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서는 단순한 구도 속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롤랑바르트가 제기한 바, 징후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 일반화되는 즉 여러 특성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캐릭터를 형성하기를 원한다[30]는 것을 고려한다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삼신이 본래 갖고 있는 다양한 면모에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삼신은 그 근원적 원형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대중의 일상에 밀접한 신이었다는 것, 외형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인의 관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신인 도깨비와 견줄 수 있다. 물론 도깨비는 한국 민간신앙에서 상위의 신이 아니며 신으로서의 성스러움보다 해학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익숙한 신이면서 도깨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양한 설화가 존재하며, 해학과 성스러움의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두

30) 홍순석 외, 앞의 책, p. 9.

캐릭터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도깨비는 동화나 만화 같은 텍스트콘텐츠는 물론, 산업콘텐츠로서도 끊임없이 재창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제작되어 주목을 받아 성공적인 문화콘텐츠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도깨비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삼신이 동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콘텐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대조를 이룬다. 도깨비 캐릭터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하였다면, 삼신의 가능성은 보다 무궁무진하다.

3) 풍부한 서사를 통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삼신은 신이 된 내력이 자세히 담긴 무속신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할 이야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3)에서 소개된 무속신화의 서사를 통해 삼신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우선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 조건인 시공간적 배경을 무속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시간적 배경은 생명이 탄생하는 매순간이 삼신이 존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등 어느 순간도 가능하다. 공간적 배경은 삼신이 주로 인간세계에서 활동하지만, 정주하는 공간으로 서천꽃밭이 존재하며 이곳은 옥황상제의 명에 의해 생명의 꽃을 가꾸는 환상적 공간으로서 그 구체적 형상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다. 특히 무속신화에서는 삼신의 직능과 관련하여 서천꽃밭이 등장하여 생명의 꽃을 키우는 모습과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별로 꽃의 의미가 묘사되는 대목이 있어 한국 신화의 독특한 공간관념이 삼신라는 캐릭터와 함께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스토리텔링 소재로서의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속신화에서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바리공주〉 등 다른 작품에

서도 묘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물관계의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삼신은 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라는 천신과의 관계를 통해 신직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신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부모와 고향이 있어 인간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있다. 또한 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 삼신, 걸레 삼신, 업게 삼신(애기를 돌보아주는 이)'이라는 하위신격과 함께 산모의 해산과 이후의 과정을 진행한다. 삼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면 주변 인물구조의 설정에 이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스토리 구조는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담이자 영웅담으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험여행, 대결구조가 함께 드러나는 등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무속신화는 제주도 말로는 '본(本)풀이'라 하는데, 신의 근본을 풀이하는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그린 내력담이기에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성장담이나 모험담이다. 삼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당금애기〉에서는 다소 수동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 신의 어머니로서의 면모만 부각되어 서사로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의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명진국 따님애기가 평범한 인간에서 생명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과의례를 겪으며 완벽한 존재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다양한 시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동해용왕 따님애기와의 대결을 통해 신격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성장담과 모험담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대결구도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

대결구도는 동해용왕 따님애기 외에도 마마신 대별상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앞선 대결이 신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대결이었다면, 대별상과의 갈등은 완전한 신이 되고 난 후 삼신의 위상을 보여준다. 처녀신으로서의 가녀린 면모를 뛰어넘어, 생명의

신으로서 삼신의 능력과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완벽한 승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승되는 서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삼신이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신이라는 점이다. 신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화를 시도했던 관련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이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신화를 신화답게 살려낸 쪽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서사요소와 캐릭터, 이미지 등으로 '해체'한 쪽에 해당한다. 신화 본연의 숨결과 생명력이 사라진 채로,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가 몰각된 채로 뼈대나 껍데기에 해당하는 요소만 남은 형국이다.[31] 그러므로 삼신의 신으로서의 위상과 신성한 이미지를 중심에 두고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삼신은 보편성과 신성성을 담보한 한국인의 영원한 신이다.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 생명의 신에 대한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으로 삼신에 주목하고, 캐릭터로서의 가능성을 통해 흥미로운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삼신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문화에서 삼신이 전승되었던 전통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삼신의 현대적 재현은 동화와 웹툰,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31) 신동흔,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 124.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동화에서는 무속신화의 서사를 가져와 약간의 개작을 거쳐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활발한 콘텐츠로서의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삼신이 주요한 소재로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웹툰이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된 삼신은 산육신의 성격을 중심에 두고 조연이나 극 전체를 관망하는 역할로 등장하고 있으며, 결코 주인공이 아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 외형을 할머니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았고, 산육신이면서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존재로 그리기도 하였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에서는 산육신을 넘어 생명의 신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으며, 동시에 외형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전복시킴으로써 대중에게 삼신이라는 신격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삼신을 주요 소재로 하는 이렇다 할 콘텐츠가 없다는 데 아쉬움을 느끼고 여러 분야에서 재창조된 도깨비처럼 삼신도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며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삼신이 가진 원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삼신은 한국인의 신일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집집마다 모시는 가신신앙의 중요한 신격이었기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다. 삼신은 기자신앙의 대상이자 포태신, 산육신이라는 생명 탄생을 아우르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의 신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인의 소망의 대상이면서 그 존재를 통해 위로가 되는 신격이었다.

지금까지 삼신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화가 조연의 역할에 그쳤다면 삼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삼신은 한국 보편의 신이라는 위상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신 관념이 있다는 데서, 문화콘텐츠로서의 삼신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적 보편성을 이

미 획득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이 외에도 무속신화에 묘사된 모습은 처녀신으로서의 모습이나 강인한 여성신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어 외형을 다양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격신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민간신앙에서 모셔진 신체(神體)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다. 삼신의 성격 또한 단일하지 않다. 자애로운 여신으로서의 이미지 외에도 복합적인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풍부한 서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삼신이라는 캐릭터의 장점이 될 수 있다. 무속신앙의 신격으로서 불도맞이제와 같은 의례에서 불리는 무속신화의 삼신은 처녀신이면서 신성한 신으로 좌정하는 성장담, 대결담이나 모험담의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삼신은 원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가 다양하며, 궁극의 신으로서 한국인의 일상과 관념 안에 자리잡고 있는 크기에 비하여 문화콘텐츠로서는 산육신이라는 한정적인 이미지만이 재생산되고 있다.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삼신 문화콘텐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문화산업의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결과가 원자료의 형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화, 즉 정보화가 이루어져야만 문화산업의 기본 원천이 될 수 있다.[32] 정보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가능성을 가진 콘텐츠 재료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이나 전통문화를 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원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여타의 원형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주인공과 서사를 만들어내는 '재창조'를 이뤄

32)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집, 인문콘텐츠학회, 2003, 10-11쪽.

내는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제기의 하나로 삼신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가 현대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획득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병수, 『삼신은 아기배달부』, 행복한 만화가게, 2005.
김원석 엮음 · 홍선주 그림, 『삼신할미가 된 당곰애기』, 대교출판, 2004.
이춘희, 『숯 달고 고추 달고』, 사파리, 2008.
정하섭, 『삼신과 아이들』(이 세상 첫 이야기 시리즈), 창작과 비평사, 2002.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초록인 글 · 오진욱 그림, 『삼신할머니 저승할머니』(우리 겨레 여신 이야기 시리즈 2권), 교학사, 2006.
편해문 글, 노은정 그림, 『아기를 주시는 삼신: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는 그림책』, 소나무, 2008.

네이버(NAVER) 웹툰 〈지구가 멸망한다면〉(2012)
네이버(NAVER) 웹툰 〈금수저〉(2016-현재)
다음(DAUM) 웹툰 〈쌍갑포차〉(2018) 16화
텔레비전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SBS)
텔레비전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2016, TVN)

2. 논문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집, 인문콘텐츠학회, 2003, pp. 5-27.
김난주, 「한일 산육신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15.
류철균 · 이지영, 「형성기 한국 웹툰의 장르적 특질 연구」, 『우리문학연구』 44집, 우리문학회, 2014, pp. 567-600.

박기수, 「한국캐릭터서사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pp. 182-214.
박경하, 「한국의 문화원형콘텐츠 개발현황과 과제」, 『인문콘텐츠』 3집, 인문콘텐츠학회, 2004, pp.7-24.
박노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환상성: 1990년대 이후의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장르회 지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5. 환상물』, 이론과 실천, 2016, pp. 629-660.
박수진, 「문화콘텐츠로서 도깨비 서사의 가치와 활용가능성」, 『한국언어문화』 46권 46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pp. 187-227.
송성욱, 「문화콘텐츠 창작소재와 문화원형」,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pp. 75-89.
신동흔, 「21세기 사회문화적 상황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pp. 117-146.
염원희, 「텔레비전 드라마 〈도깨비〉에 재현된 전통문화의 변용 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48, 인문콘텐츠학회, 2018, pp.217-240.
이명현, 「설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미호 이야기의 재창조 –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3권 1호, 2012, pp.35-56.
이수자, 「삼신 신앙의 기원과 성격」, 국어국문학회 편, 『민요·무가·탈춤 연구』, 태학사, 1998, pp. 353-386.
정래진, 「삼신받기의 제 유형과 의미」, 『역사민속학』 제2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pp. 143-175
정연학, 「한중 가신 신앙의 비교」, 『비교민속학』 35집, 한국비교민속학회, 2008, pp. 150-151.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8.
A. Guillemoz, 「삼신 할머니: 동해안의 한 어촌에서의 신앙과 무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7, 한국문화인류학회, 1975, pp. 21-28.

3. 단행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朝鮮常識問答 朝鮮常識』(육당최남선전집 3), 현암사, 1973.
이규창, 『전라민속논고(全羅民俗論攷)』, 집문당, 1994.
이능화, 『조선무속고-역사로 본 한국 무속』, 서영대 역주, 창비, 2008.
홍순석 외, 『한국문화와 콘텐츠』, 한국문화사, 2016.

4. 인터넷 자료

백민영, 「삼신」, 『한국민속신앙사전: 가정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8963&cid=50222&categoryId=50229(검색일: 2018.4.28)

(**투고일**: 2018. 5. 24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염원희
소속: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화번호: 010-8894-5792
전자우편: kanakae@naver.com

[Abstract]

Seeking the Possibility of Using Cultural Contents of Samsin Related Material

YOUM, WON HEE

This article focuses on Samchin among Korean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and discusses possibility of interesting cultural contents. To this end, I have examined the case where Samsin is used as cultural contents. I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contents through the tradition of Samshin in Korean culture.

It was made in such areas as Samshin's fairy tales, Webtoons, and TV dramas. On the whole, the character of the body was centered and the same image repeatedly reproduced or played a role of supporting. There are various images of Samshin that are kept in a circular shape. However, as cultural contents, there is a limitation that only the limited image of the god of life is reproduced. Samshin has an Asian universality beyond Korea. In addition to her grandmother, she also has a virgin god, a strong woman god. In addition, Samshin has a narrative structure of growth story and confrontation.

What is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originating from classical literature or traditional culture is to critically accept prototyp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recreation and narrative that will accommodate the demands of the times by accepting other prototypes in a complex way.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cultural contents as a subject of such problem.

Key words : Samshin, Great Mother, Cultural contents, Culture industry, Culture prototype